

제약 세계1위 Merck도 회계조작

WSJ, 3년간 자회사 메드코 통해 매출 124억달러 허위로 계상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최고신용등급(AAA)을 부여한 제약기업 Merck가 매출을 대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엔론, 월드컴, 제록스의 회계조작에 이어 또다시 충격을 던지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은 Merck가 지난 3년간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124억달러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자회사 메드코 헬스 솔루션스의 매출을 회계처리했다고 7월8일 보도했다. 머크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이다.

머크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환자가 지불하는 약조제비(코페이먼트)를 매출 부풀리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처방전 카드를 지니고 있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약값은 10-15달러 선이다. 조제비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지불하고 약국은 조제비를 한 푼도 건강보험회사인 메드코로 송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드코는 약조제비를 모두 매출의 일부분으로 계상해 매출을 부풀렸다.

같은 방식을 통해 메드코는 2001년 55억달러의 매출을 부풀렸다. 2001년 머크가 올린 총 506억달러의 매출의 11%에 달하는 것이다.

2000년과 1999년에도 조제비를 매출로 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메드코 매출을 각각 40억달러, 28억달러 부풀렸다.

머크는 1993-98년 조제비 매출 계상방식을 이용해 얼마만큼 메드코의 매출규모를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매출관련 회계처리가 미국의 일반회계준칙(GAAP)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조제비를 매출로 계상하는 동시에 같은 규모의 자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쇄했기 때문에 기업순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머크가 환자의 처방전 약 제조비를 매출로 계상함에 따라 어떤 이익을 얻는지는 불확실하다.

매출이 커지는 반면 이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불리한 점도 없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거래를 펼쳐 이를 통해 약가할인 등의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가입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머크의 매출부풀리기 회계처리는 미국 거대기업의 잇따른 회계추문으로 기업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터져나와 기업에 대한 시장신뢰 추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머크는 6월27일 자회사인 메드코 기업공개를 통해 10억달러를 조달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기업공개를 연기한 상태로 부정회계 사태로 기업공개에 한층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제약기업 머크는 매출액 기준 세계 1위로 2001년 매출이 477억1600만달러에 달해 경쟁기업인 Johnson & Johnson(330억400만달러)과 Pfizer(322억5900만달러)보다 월등히 높았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현대인의 식습관과 관련된 질병 치료제가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처방약 관련 보험사업부인 메드코에서 나온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7/ 09 >